

여행의 감동... 사진으로 보고 동시에 읽어요

서향숙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창 '따스속 거인' 발간

어릴 적 꿈 호주·뉴질랜드 여행 55편의 동시·사진과 함께 실어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또한 멀리 가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여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그 가운데 여행은 지식과 앎을 직접적으로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서향숙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63)이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에서 받은 감동을 동시에 형상화한 동시집 '따스속 거인'(푸른 사상)을 발간했다. 모두 55편이 수록된 신작 작품집에는 지난 연말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보고 느낀 감정을 형상화한 시들이 담겨 있다.

"어릴 때부터 세계 일주 여행이 꿈이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행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 대가족의 주부, 어머니로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세계 일주 여행이라는 꿈을 이루어 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자가 '여행'을 매개로 시집을 펴내게 된 이유다. 책은 제1부 '호비트 마을', 제2부 '밀포드 사운드', 제3부 '블루마운틴', 제4부 '오페라 하우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1부와 2부는 뉴질랜드, 3부와 4부는 호주의 풍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적인 작품의 이미지는 환상적이고 신화적이다. 일부 사실적인 이미지의 작품도 있지만 시집이 주는 인상은 대부분 동화적이다. 표제작 '따스속 거인'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따스속 깊은 곳에서/ 커다란 거인이/ 어머머머한 숲을 걸어 놓고/ 유허 불을 품고 있나 봐//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꿈이느라/ 엄청 고생하겠네/ 조금도 쉬 새 없이/ 불 앞에서 앉아 있으니/ 무지무지 뜨겁겠네// 거인이야! 이젠 그만 좀 하면 안 돼?/ 유허물이 크게 끓어올라/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고 유황 물을 끓이고 있다'고 유추하는 대목은 사뭇 이채롭다. 각각의 동시에는 배경이 되는 감동적인 사진이 수록돼 있어 '보는 동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서향숙은 "많은 어린이들이 여행 동시집을 읽고 감동과 재미를 느끼기를 희망한다"며 "어린이들이 많은 여행을 하여 '백문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주는 가르침처럼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향숙은 지난 2014년 28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며 자신이 써온 동시 122곡을 동요로 만든 동요곡집 '시골 빈집'을 발간했으며 제자들이 시낭송·동요를 무대에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시골 빈집'으로 등단했으며 방정환 문학상, 새벗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동시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온전을 보는 화자의 상상력은 활달하다. 뉴질랜드 화산섬 화산공원에 대해 '따스속 거인이 커다란 숲을 걸어놓고 있다'고 유추하는 대목은 사뭇 이채롭다. 각각의 동시에는 배경이 되는 감동적인 사진이 수록돼 있어 '보는 동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집 '연못에 놀러온 빗방울' 등을 펴냈고, 명지대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광주교육대학교원에 출강하고 있다.

서향숙 시인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밤, 오페라에 빠지다

제 77 회 광장음악회 17일 광주 노대동 물빛공원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1813~1901)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상연되는 수많은 오페라를 남긴 음악가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해 '일 트로바토레', '나부코', '리골레토' 등 그의 대표작들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극적인 구성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베르디

다양한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제 77회 광장음악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열린다. '베르디의 오페라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문을 연다.

이어 바리톤 김지영이 '돈 카를로' 중 '기꺼이 나는 죽겠노라'를, 베이스 김일동과 소프라노 이현희씨가 '맥베스' 중 '하늘에서는 아들이 떨어지고'와 '아직도 여기에 핏자국이'를 부른다. 또 테너 김정규씨가 '루이자 밀라' 중 '이해 고요한 밤에'를, 메조 소프라노 신은정씨가 '일 트로바토레' 중 '불꽃은 타오르고'를 선사한다.

그밖에 남성 듀엣 곡으로 '리골레토' 중 '그가 나를 저주했네', 앙상블로 '아름다운 아가씨여'를 선사하며 테너 김백호씨와 소프라노 홍선희씨가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그리운 이름이여'를 부른다. 두 사람은 함께 호흡을 타 맞춰 '라 트라비아타' 중 '파리를 떠나며'도 선사한다.

피날레곡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유쾌한 곡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가 장식한다. 사회는 오원희씨가, 피아노 반주는 나원진씨가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여류문학회 제24회 연간집

'흰 꽃 한 송이' 퍼내

전남여류문학회(회장 정혜진)는 제24회 연간집 '흰 꽃 한 송이'(한림)를 펴냈다.

연간집에는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글밭을 일구는 회원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성 특집'으로 해나 출신 백주자 시인을 조명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혜진 동화작가가 '학문과 종교적 모색을 시로 표현한 시인'이라는 주제로 백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조명했다. 백 시인은 숙명여대 불문과와 프랑스 루앙대학교 대학원 불문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1년 월간 '시문학'에 전료돼 등단했으며 한국현대시인협회, 광주문인협회, 원탁시, 시누대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07년 제20회 광주문학상을 수상했다.

정 작가는 "백 시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매진했고 불교에 심취해 종교에 기반을 둔 정신세계와 철학에 관심을 보였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문학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회원 작품에는 임준익 시인 등 16명의 시와, 민군순 시인 등 5명의 동시, 박애금 수필가 등 7명의 수필, 이매훈 동화작가 등 2인의 동화가 수록됐다. 또한 제23회 어린이 효행글짓기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화산 동명초 김예진 양의 '할아버지의 낡은 모자'와 화산 도곡중앙 초등학교 전현민 양의 '내 생애 첫 집안일'도 실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7회 사진공모전 최우수작 장은영씨의 '평생친구'.



제7회 사진공모전 최우수작 안상진씨의 '어릴적 친구'.

'우·행·순'

제8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유·스퀘어문화관 27일까지 접수

유·스퀘어문화관이 27일까지 '제8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사진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우·행·순(우리 삶의 행복한 순간)'이다.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 운동 후 시원한 맥주를 마시던 모습,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느낀 감성 등을 사진에 담아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핸드폰 사진으로도 참가 가능하지만 해상도 규격(800만화소·3600X2400mm 이상)에 맞아야 한다.

작품은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디지털 이미지(JPG, JPEG)형식 파일만 제출할 수 있다.

응모 희망자들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해 사진파일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u_culture@naver.com)로 보내면 된다.

합격자는 10월 초 발표할 예정으로 최우수 2점, 우수 4점, 장려 6점, 참가상 14점 총 26점을 선정한다. 입상작들은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입상작 전원에게는 뮤지컬 '달동네 콤플렉스' 초대권과 문화상품권, CGV영화 관람권 등을 증정한다. 문의 062-360-84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중국 광저우 공연

단체 유료 진행... 전석 매진 대성황



김주원·윤전일 등 참여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신순주)이 지난 6일 중국 광저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한 중국 공연에 1700여 관객이 참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광주·광저우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광주 시립무용단은 지난해 이 극장에서 '지젤'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광주시립발레단 무용수와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마 발레리나 김주원, 스타무용수 윤전일이 함께한 이번 공연은 아시아 공연단으로는 최초로 단체 유료 공연을 진행해 전석 매진을 기록

했다. 이번 공연 '봄의 제전 G'는 지난 4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제물로 희생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는 슬픈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스트라빈스키 음악과 니진스키 안무로 잘 알려진 작품을 한국 특유의 제의식과 깃털극의 정서, 한자로 채워진 무대, 전통악기로 이루어진 음악 등으로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다. 광주·광저우 자매도시 결연 기념 공연은 오는 10월 28~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한·중 공연 예술제'에서도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 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상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